* 『감시와 처벌』, 1975

① *Surveiller et Punir: Naissance de la Prison*, Gallimard, 1975.
② *Discipline and Punishment: The Birth of the Prison*, trans. A. Sheridan, Allen Lane/Pantheon, 1977; reprinted Peregrine/Vintage, 1979.
③「푸코의 문명 비판」, 박정자 옮김, 『예술과 비평』, 1988년 가을호. 『감시와 처벌』 제3장 제3절의 발췌・번역.
④『감시와 처벌: 감옥의 탄생』, 박홍규 옮김, 강원대학교 출판부, 1989. 특히 역자의 「옮기면서」(i-xii)를 참조.
⑤『감시와 처벌: 감옥의 탄생』, 오생근 옮김, 나남, 1994.
⑥ **『감시와 처벌: 감옥의 역사』, 오생근 옮김, 나남출판, 2003.** ⑤와 동일한 역자에 의한 '재판'. 부제가 바뀌었고, 'délinquance, délinquant, discipline, le carcéral' 등의 용어가 각기 '비행, 비행자, 규율, 감옥구조・감옥체계・감금체계'로 바뀌는 등 전체적으로 문장을 새롭게 다듬은 '개정' 재판.

1부 신체형

1장 수형자의 신체

1757년 - 국왕 시해미수범 다미앙의 판결문(23)
1838년 - 레옹 포쉐의 '파리 소년 감화원을 위한 규칙'(27)

신체형의 소멸. 인간화(29). 18세기 말 19세기 초. 교정・감화・치료. 형무소(刑務所) -> 교도소(矯導所)? 심리학자, 도덕적 정형외과의 성격을 갖는 소인배 관리들(33) 사형집행인 -> 간수, 의사, 사제, 정신과 의사, 심리학자, 교육학자 등과 같은 전문가들(35)

사형집행의 근대적 의식 전체 - 1) 구경거리의 소멸 2) 육체적 고통의 제거(35)
신체형의 소멸 - 1830년에서 1848년 사이의 시대에 일반화. 특히 1780년에서 1820년까지의 수십 년에 걸친 거대한 사회혼란의 시기 혹은 1760년에서 1840년에 이르는 시대의 대변화. 신체형은 1840년 경에 이루어진 근본적 변화에 의해 소멸(40-41)

형벌제도가 힘을 행사하는 대상이 신체(corps)가 아니라면, 그것은 이미 영혼(l'âme)이다(43). 마블리(Mably) - "징벌은 신체보다 영혼에 가해져야 한다."(43-44)

1810년 나폴레옹 형법전의 64조 - 광기: "범죄자가 범죄행위를 정신이상의 상태에서 저질렀을 경우, 중죄도 경범죄도 적용되지 않는다(il n'y a ni crime ni délit, si l'infracteur était en état de démence au moment de l'acte)."(48) 광기의 문제는 제64조의 본래적 의미에서 중죄를 소명시키기는커녕, 한 걸음 더 나아가 모든 중죄, 극단적으로는 모든 범죄가 그 자체 속에서 정당한 의혹으로서 그리고 또한 당연히 요구할 수 있는 권리로서의 '광기(folie) 및 비정상(anomalie)의 가설'을 세울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다. 더구나 유죄이든 무죄이든 간에 선고는 단순히 유죄의 판결이거나 혹은 판결을 내리는 법적 결정에 그치지

않는다. 판결은 자신 안에 하나의 규범성 평가(une appréciation de normalité) 및 규범화 가능성에 대한 하나의 기술적 명령(une prescription technique pour une normalisation possible)을 내포하고 있는 것이다. 오늘날 재판을 행하는 사람은, 판사이든 배심원이든, '재판'(juger)과는 다른 어떤 일을 행하고 있는 것이다(49).

이 책의 목표는 다음과 같은 것이다. 즉 근대적 영혼과 새로운 사법 권력 사이의 상관적 역사, 곧 처벌을 관장하는 권력이 근거를 두고 있고 그것의 정당성과 법칙을 받아들이며 영향을 넓혀가면서 그것의 엄청난 기현상을 은폐하고 있는 과학적이고 사법적인 복합체의 계보학을 기술하는 것이다(52).

우리 연구의 네 가지 일반규칙 - (1) 처벌을 복합적 사회기능으로 파악한다. (2) 징벌을 정치적 전술로 파악한다. (3) 권력의 기술론을 형벌제도의 인간화 원칙(형법의 역사)과 인간인식의 원칙(인간과학의 역사) 위에 위치시킨다. (4) 인간 영혼 및 '과학적' 지식 전체의 개입이 권력관계에 의해 신체가 취급되는 장악 수단의 변화에 의해 초래된 효과가 아닌지 탐구한다. 요컨대, 처벌 수단의 변모 연구에 있어 신체에 관한 정치 기술론(une technologie politique du corps)을 출발점으로 삼도록 시도한다(53). 우리 사회에서 처벌제도를 신체에 관한 일종의 '정치경제학' 속에서 재정립해야 한다(55). 신체의 정치적 기술론(la technologie politique du corps), 권력의 미시물리학(57)

권력의 미시물리학의 가설들: 행사되는 권력은 (하나의 소유물로서가 아니라) 하나의 전략으로 이해되어야 하며, 권력지배의 효과는 (소유에 의해서가 아니라) 배열・조작・전술・기술・작용 등에 의해 이루어진다. 권력 안에서 (소유 가능한 어떤 특권이 아니라) 오히려 항상 긴장되어 있고 항상 활동 중인 관계망을 찾아내야 하며, 권력의 모델 또한 (양도・거래를 행하는 계약, 혹은 영토를 점유하는 정복이 아니라) 오히려 영원히 지속되는 전투를 생각해야 한다. 권력은 (소유되기보다는) 행사되는 것이며, (지배계급이 획득・보존하는 '특권'이 아니라) 지배계급의 전략적 입장의 총체적 효과이고, 피지배자 입장을 표명하고 때로 연장시켜주기도 하는 효과이다(57-58).

인식 주체, 인식 대상 및 인식 양태는 모두 권력-지식(pouvoir-savoir)의 기본적 관계 및 그것의 역사적 변화의 결과들이다(58-60 * 중요).

- 칸토로비치(Cantorowitz)의 '국왕의 신체'에 대한 분석
- 신체가 아닌 비신체적 이중화, 마블 리가 말한 '영혼의 이중화'
- 처벌 권력의 이 '미시물리학'의 역사는 하나의 계보학, 오히려 근대 영혼의 계보학을 만들기 위한 요소가 될 것이다(61).

영혼은 정치 해부학의 효과이자 도구이다. 영혼은 육체의 감옥이다(62).
L'âme, effet et instrument d'une anatomie politique; l'âme, prison du corps(34).

감옥의 역사 - 현재의 역사 기술(63)

2장 신체형의 호화로움

1670년의 왕령(L'ordonnance) - 프랑스 대혁명까지 형벌실무를 지배(65). 르네상스. 권력의 경제학 - 신체형의 극단성(69). 고문에서 형집행으로의 순환과정에서 신체는 범죄의 진실을 재생산한다(87). 로마시대의 처벌권은 살생권(merum imperium)(89). 신체형의 법률적·정치적 기능 - 상처받은 군주권의 회복을 위한 의식(儀式)(89). 진실과 권력의 상관관계(99)

범죄문학(littérature du crime) - 암흑소설. 추리소설. 범죄의 아름다움과 위대성의 발견. 위대성이란 범죄를 행할 권리가 있으며 범죄는 현실적으로 위대한 사람들이 갖게 마련인 특권이기도 하다(119-120).

2부 처벌

1장 일반화된 처벌

1789년. "인간성에 위배되는 신체형은 폐지해야 한다."(123). 위대한 개혁자들. 베카리아(126) **보다 적게 처벌하는 것이 아니라, 보다 잘 처벌할 것**(136) *non pas moins punir, mais punir mieux*(84). 형벌의 인간성(146) 형벌제도는 위법행위의 근절하기(supprimer) 위해서가 아니라, 위법행위를 그 차이에 따라 나누어 관리하기(gérer) 위한 장치로서 만들어진 것임을 이해해야 한다(146/91).

* 18세기 행형(行刑) 개혁의 본질적 존재이유들
(1) 형벌 개혁의 목표를 이동시켜 그것의 등급을 변화시킬 것
(2) 한층 더 미세해지면서 사회체(le corps social) 안에 보다 광범위하게 확산된 목표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새로운 전략을 세울 것
(3) 사회체 속에서 처벌을 조정하여 그 성과를 조절하기 위한 새로운 기술을 찾아낼 것
(4) 징벌의 기술을 규정화하여 완성시키고 보편화시키기 위한 새로운 규칙을 정할 것
(5) 그 기술의 행사를 동질적인 것으로 만들 것
(6) 그 기술의 효과를 증대시키고, 그것의 회로를 다양하게 확산시켜 경제적이고 정치적인 비용을 줄일 것
(7) 요컨대, 처벌 권력의 새로운 관리방식과 새로운 기술론을 만들 것(147).

"인간적 처벌만을 적용해야 한다"는 **인간성**은 이러한 형벌의 경제적 합리성에 부여된 이름(150).

하나의 범죄가 사회 집단에 미치는 해악은 바로 그 범죄에 의해 초래되는 무질서이다. 즉 그것은 추문을 일으키는 원인이자 나쁜 본보기이며, 처벌하지 않으면 재발될지도 모르는 악의 선동이자, 일반화할 가능성을 담고 있는 것이기도 하다. 징벌이 유익한 것이 되려면 범죄가 초래할 수도 있는 일련의 무질서(désordres)로서 이해되는 범죄의 결과를 목표로 삼아야 한다. "형벌과 경범죄의 성질 사이의 비례 관계는 범죄자가 위반하는 계약이 사회질서

에 미치는 영향에 의해서 결정된다." 처벌은 [...] 지나간 범행에 대해서가 아니라, 앞으로 있을지도 모르는 무질서에 목표를 두어야 한다. [...] 처벌은 효과를 노리는 기술이 된다(151-152)

본보기의 징벌이란, 이제 과시적인 의식이 아니라, 범죄 방지라는 목표를 갖는 기호이다. 이 처벌 권력의 기호기술론(sémio-technique)은 다음의 법칙에 근거한다. (1) 최소 분량의 법칙 (2) 관념성 충족의 법칙 (3) 측면 효과의 법칙 (4) 완벽한 확실성의 법칙 (5) 공통적 진리의 법칙 (6) 최적 특성화의 법칙

형벌 개별화의 필요성. 개인화・개별화・개체화(individualisation)(161)
범죄(crime)가 아니라 범죄성(criminalité)가 처벌의 대상이 된다(163)

이중적 과정
- '비정상인'으로서의 범죄자의 탄생. 대상화(objectivation) .
- 범죄와 범죄자의 대상화(165)

대상화의 두 측면 중 권력 재편성과 맞물린 대상화는 기호 체계화, 범죄 규정, 형량 계량 결정, 소송 과정 규칙, 사법관의 역할 규정 등의 성과. 이는 이들이 관념학파(Idéologues)의 담론에 기초를 두었기 때문으로, 이해・표상・기호의 이론에 입각해, 수단으로서의 기호학, 권력을 위한 문자 기록의 표면으로서의 '정신'(esprit), 관념(idées)의 통제에 의한 신체의 예속화. (신체형의 의식에 대한 해부학보다 훨씬 유효한) 신체에 대한 일종의 정치학적 원칙으로의 표상분석.

* 세르방(Servan): 죄와 벌의 개념은 긴밀하게 관련되어야 하고, "중단 없이 연결되어야 한다 ... [...] 어리석은 전제군주는 노예들을 쇠사슬로 구속할지 모르지만, 참된 정치가는 그거보다 훨씬 강하게 관념의 사실로 노예들을 구속한다. 정치가가 사슬의 한쪽 끝을 붙잡아 두는 이성이라는 고정된 측면이다. 또한 그 사슬은 우리가 그 구조를 모르면서 스스로 만들어낸 것이라고 믿고, 그러면 그럴수록 더욱더 단단히 조여드는 것이다. 절망감과 시간의 경과에 따라 쇠와 강철로 된 쇠사슬은 부식되고 말지만, 습관으로 굳어진 관념의 연합은 더욱더 강하게 조여드는 사슬과 같다. 가장 튼튼한 제국의 흔들리지 않는 기반은 인간의 부드러운 두뇌신경조직 위에 세워진 것이다."(1676년, 『범죄사법 행정에 관한 논설』)(166-167)

2장 유순해진 형벌

제제-낙인(marques-vindictes)을 대체하는 장애-기호(signes-obstacles)의 조건
(1) 가능한 자의적이 아닐 것. "징벌로부터 범죄를 명료하게 이끌어내는 것이야말로 처벌을 범죄와 조화시키는 최선의 방법이다. 이것은 사법의 승리이자, 자유의 승리이다. 왜냐하면 이 경우 형벌은 이미 입법자의 의지에서 생겨나는 것이 아니라 불가피하게 생기는 것이 되어 사람들은 이미 인간이 인간에게 폭력을 휘두른다고는 생각하지 않기 때문이다."(마라, 『범죄법 초안』(1870)) 그러한 상동관계의 처벌을 통해 처벌 권력은 자신의 모습을 숨길 수 있게 된다.(170-171). 형벌에 관한 일종의 이성적 미학(172)

(2) 이러한 기호 작용은 힘들의 역학관계와 맞물려 있어야 한다(172). 이해관계의 경제학, 정념의 역학(174)
(3) 형벌의 시간적 조정 및 배분의 효용성(174).
(4) 수형자(le condamné)에게, 형벌은 기호·이해·지속으로 만들어진 하나의 기계 장치(mécanique)이다. 그러나 죄인(le coupable)은 징벌의 한 표적일 뿐이다(176). 수형자의 신체는 구체제에서 국왕의 것이었으나, 이제는 사회적인 것으로 집단적이면서 유익한 소유의 대상이 된 것이다(177). 죄인은 죄값을 두 번 치른다. 즉 그가 제공하는 노역과 그가 만들어내는 기호로 보상하는 것이다(177-178).
(5) 교묘한 경제적 광고 효과. 본보기 징계 - 공공도덕에 대한 교훈·담화, 판독 가능한 기호, 연출적 효과나 회화적 표현형태(178). 법은 개혁되었으나 결국 법을 위반한 범죄의 옆자리에 다시 자리 잡은 셈이다. 그 대신 범죄자는 사회로부터 격리된다. 범죄자는 사회로부터 떠나게 된다(179). 징벌은 축제라기보다는 교육이고, 의식이라기보다는 오히려 늘 펼칠 수 있는 책이어야 한다. 법의 정원(Les Jardins des Lois)(180).
(6) 범죄자들의 의심스러운 영광, 영웅시하는 찬양은 사라지고, 징벌에 대한 계산된 두려움 때문에 범죄의 욕망을 중단시키는 억제의 기호만을 이야기할 것이다. 도덕주의적 담론(181-182). 처벌의 도시. 교육적 역할. 모든 징벌은 바로 교훈담(182-183).

감금이 순식간에 징벌의 본질적 형태가 되었다. 1810년 이전 사형과 벌금형 중간에 있던 감금은 거의 모든 영역을 차지하게 된다(185-186). 국가 기구의 총체적 조직과 합치된 폐쇄적이고 복합적이며 등급화 된 거대 구조로서의 근대 감옥(186) 감옥에 의한 형벌의 식민지화(189)

영국 모형은 노동의 원칙에 덧붙여 독방을 교정의 본질적 조건으로 삼는 것이다. 1775년 한웨이(Hanway). 자기반성, 자기 양심 속에서 선(善)의 목소리, 무서운 충격효과, 도덕적 주체 욕구. 경제적 인간과 종교적 양심의 재건. 법과 도덕에로의 복귀와 범죄 사이에서 감옥(197).

징계와 교정은 개인을 완전히 변형시키는 개조 과정, 신체 및 습관의 개조, 정신과 영혼의 개조 과정이다. 행정기관인 감옥은 동시에 정신을 개조하는 기구가 될 것이다(200-201). 품행에 대한 이러한 통제와 변화에는 - 그 조건인 동시에 결과로서 - 개개인에ㅡ 대한 지식의 축적이 수반된다. 감옥은 분류를 통한 상설 감시시설. 인간을 개별화시키는 지식의 총체, 개인이 숨기고 있으며 일상적으로 감시되는 행위 속에 나타나는 잠재적 위험을 참고의 대상으로 삼는다. 감옥은 하나의 앎의 기구(un appareil de savoir)로서 작용한다(202-203)

교정시설(réformatoires). 개인적 교정은 법주체로서의 개인의 재규정화 과정을 확고히 한다(203-205). 교정(矯正). 형벌의 적용지점은 표상이 아니라 신체 그 자체, 시간, 날 마다의 동작과 행동이다. 또한 그것은 정신이기도 하지만 어디까지나 습관적인으로 되풀이 되는 지점의 정신이다. 신체와 정신. 개인에 대한 계산된 통제(205-206).

범죄에 대응하는 두 방법 - 1) 사회계약상의 법적 주체의 재구성 2) 어떤 권력의 일반적이

며 동시에 세부적인 모든 형식에 순응하는 복종하는 주체의 형성. 그러나 양자 모두는 복종하는 개인을 만들어내기 위한 것(207).

사회의 그물눈 전체에 유출되는 처벌 권력은 (사람이 사람에게 행하는 권력으로서가 아니라) 각 개인에 대한 만인의 직접적 반응으로서 인식될 것이다. 이는 죄인의 신체와 시간에 대한 세심한 장악이고, 권위와 지식 체계에 의한 죄인의 동작과 품행의 단속이다. 이는 죄인을 한 사람 한 사람 교정시키기 위해 그들에게 적용하는 신중한 정형수술이다. 이는 엄밀한 의미에서 사법권은 물론 사회 자체로부터도 유리되어 있는 권력의 자율적 지배이다. 감옥의 출현과 더불어 생긴 것은 처벌 권력의 제도화이다(208).

- 격파된 적, 새롭게 규정되고 있는 법적 주체, 직접적 강제권에 복종되는 개인
= 1) 신체형을 당하는 육체(르네상스, 과시하는 권력), 2) 자신에 관한 표상이 조작되는 영혼(고전주의, 이데올로그들의 표상 조작), 3) 훈육을 받는 육체(근대, 처벌 권력)이 상호 충돌하는 18세기 말의 세 가지 계열은 사법으로도, 기구·제도로도, 도덕적 선택으로도 환원불가능하다. 이는 처벌 권력이 의존하는 세 가지 권력의 테크놀로지(technologie de pouvoir)이다(209). 그러나 어떻게 해서 세 번째 것이 나머지 두 가지를 누르고 주도적인 것으로 부각되었는가?(210)

3부 규율

1장 순종적인 신체 les corps dociles

라 메트리(La Mettrie, 1709~1751)의 기계-인간(L'homme-machine) - 정신의 유물론적 환원, 훈육에 관한 일반 이론. 그 중심에 분석 가능한 신체와 조작 가능한 신체를 연결시키는 순종성(docilité)의 개념. 정치적 인형, 권력의 축약된 모델(214-126).

17-18세기를 거치면서 규율(discipline)이 지배의 일반적 양식이 된다. 강제권의 정치학. 권력의 역학. 정치 해부학. 규율은 복종되고 훈련된 신체, '순종하는' 신체를 만들어낸다(217). 몇 가지 테크놀로지들이 신체에 대한 정치적이고 세부적인 공격 양식, 권려그이 새로운 미시 물리학을 규정한다. 규율 = 세부적 사실의 정치 해부학(219). 돌을 깎는 방법. 규율의 역사는 도덕적 계산과 정치적 통제 관계 속에서 세부적 사실이 공리적 합리화를 지향해나간 역사(219). 아주 작은 것과 무한한 것에 더 이상 종교적이 아닌, 세속화 된 내용과 경제적·기술적 합리성이 부여된다(221). 이러한 사소한 일들로부터 근대적 휴머니즘의 인간이 탄생했을 것(222)

분할의 기술

개인 분할의 몇 가지 기술.
(1) 폐쇄성 - 공장은 이제 분명 수도원, 성채 혹은 폐쇄된 도시를 닮는다(225).
(2) 공간의 재구성 - 기본적 위치 결정 및 분할 방식의 원칙(225).
(3) 공간의 체계화 - 해군병원. 구분과 격리. 일람표(228)

(4) 서열 - 학교의 질서 안에서 개개인의 배치에 관한 큰 틀을 구성. 서열 중심적 공간편성(230-231). 교실, 교사의 시선, 일람표. 규율은 독방, 자리, 서열을 조직화하여 복합적 공간을 만들어낸다(233).

- 18세기. 자연의 분류법. 생생한 일람표. 배치와 분석, 통제와 이해 가능성. 질서, 분류학, 박물학.
- 근대의 전술학. 규율의 전술은 개별적 요소들로 구성된 전체에 대한 통제와 그 활용을 위한 일차적 조건. '독방 중심적'(234-235).

활동의 통제

(1) 시간표. 수도원
(2) 행동에 대한 시간의 작성 - 18세기. 1776년의 왕령 - 행동에 관한 일종의 해부학적-시간 구성의 도식. 시간이 신체를 관통하여, 권력의 모든 치밀한 통제가 진행된다(239)
(3) 신체와 동작의 상관화
(4) 대상-신체의 분절화(l'articulation corps-objet) - 톱니바퀴. 신체에 대한 도구적 체계화. 18세기 군사학의 교련(敎鍊, manoeuvre). 권력은 병기의 신체·도구의 신체·기계의 신체라는 복합체를 만들어낸다.
(5) 철저한 이용 - 전통적 시간표는 낭비의 금지라는 부정적인 것에 초점을 두나, 근대의 규율은 시간의 완전한 소비라는 긍정적 관리를 목표로 한다. 사소한 순간 활용의 강화. 프러시아의 프리드리히 2세, 전쟁 승리와 더불어 전유럽으로 확산. 1743년 판 프러시아 「보병규범」, 예속화·복종화는 새로운 대상을 창조. 기계적 신체(243-245).

규율 중심 권력은 분석적, 독방 중심적일 뿐 아니라, 자연적이고 유기적인 개인을 상대적인 대상물로 갖게 된다(247).

발생의 조직화

1663년. 고블랭 직물공장 창설 관련 칙령. 1737년. 고블랭 직물제조 견습생을 위한 도안학교 설립. 네 가지 절차. (1) 시간의 연속화·계열화 (2) 분석적 도식화 (3) 시험 (4) 서열화·단계화. 이제 각 개인은 수준이나 지위를 특별히 규정한 시간적 순서의 계열 안에 속하게 된다. 훈련의 규율로 구성된 다성음악(251). 연속적 활동의 계열화(252) '진화하는' 시간으로서의 사회적 시간 - '진보'(progrès)라는 의미의 진화의 발견. 진화의 역사성. 복종의 새로운 기술과 더불어 - 장엄한 사건 위주의 왕조사를 대신해 - 연소적 진화의 역학이 들어선 것이다(253).

힘의 조립

규율은 통제하는 신체로부터 네 가지 성격이 구비된 개체성을 만들어낸다. 즉 그것은 (공간배분 작용에 의해서) 독방 중심적이고, (활동의 규범화에 의해서) 유기적이며, (시간의 축적에 의해서) 생성적이고, (여러가지 힘을 조립하는 점으로는) 결합적이라는 특징을 갖는다.

이러한 목적을 위해 규율은 다음의 네 가지 주요한 기술을 사용한다. 일람표의 작성, 작전을 세우고, 훈련을 시키며, 힘의 조합을 확고히 하기 위해 전략을 꾸민다(263).

전략으로서의 전쟁은 정치의 연장인지도 모른다. 칼 폰 클라우제비츠(1780-1831) - "전쟁은 정치적 수단과는 다른 수단으로 지속되는 정치에 불과하다."
- 전략을 거쳐가는 전쟁-정치의 계열
- 전술을 거쳐가는 정치-군대의 계열(264)

18세기 철학자와 법학자들의 꿈 - 완전한 사회의 꿈/사회에 대한 군사적 통제의 꿈.
기본적 준거는 (자연 상태가 아니라) 하나의 기계장치의 주도면밀하게 돌아가는 톱니바퀴에, (원시적 계약이 아니라) 끝없는 강제권에, (기본적 인권에서가 아니라) 끝없이 발전되는 훈련 방법에, 그리고 (일반의지가 아니라) 자동적 순종에 있었다(265).

기베르 "규율을 거국적인 것으로 만들어야 한다." 나폴레옹 체제와 그에 이은 새로운 국가체제를 만들고 준비한 사람들은 법학자들뿐만 아니라 병사, 국정 자문위원, 하급관리, 법률인, 각 당파의 사람들이기도 했다.

2장 효과적인 훈육방법

좀 더 교묘히 징수하거나 보다 더 많이 사취하기 위해 훈육을 시킨다고 말해야 ... 개체성, 개별성, 개인. 규율은 개인을 '제조한다.' 규율은 개인을 권력 행사의 대상이자 도구로 간주하는 권력의 특정한 기술이다. 규율을 근간으로 하는 권력의 성공은 아마도 단순한 수단을 사용한다는 점에서 기인하는 것인지도 모른다. 그 수단이란 위계 질서적 감시의 눈빛, 규범화된 상벌 제도, 시험을 통한 결합 등이다(267-268).

위계질서적 감시

가시성(可視性, visibilité). 광학(optique) - 건축 구조·체계의 문제(269-270).
병원-건물, 학교-건물, 공장-건물, 감옥-건물.

건물은 관리라는 행정적 기능, 검사라는 치안유지적 기능, 단속과 검사라는 경제적 기능, 복종과 노동의 장려라는 종교적 기능을 수행해야 한다(273). 원형건축물. 정치적 유토피아(273). 다양하고 자동적이며 익명적인 권력. 관계망. 이 구조에서 감시자는 항상 감시받는다(279).

규범화한 제재

(1) 미시적 형벌 제도. 시간, 품행, 활동, 말투, 신체, 성의 표현 등등(281). 모든 주체가 처벌되고 처벌하는 보편적 구조 속에 포획되어 있도록 한다(282) (2) 규율 중심적 형벌의 대상은 규칙 위반, 규칙에 따르지 않는 일체의 사항, 곧 모든 일탈 행위이다(282). (3) 규율의 목표는 교정. (4) 처벌은 보상-제재라는 이중적 체계의 한 요소. (5) 서열은 그 자체가 보상

혹은 처벌과 같은 기능을 수행한다. 간단히 말해 처벌의 기술은 조작을 수행한다. 한 마디로 그것은 규범화한다. normalisation - 정상화, 규범화, 규격화, 규칙화, 획일화 등 등...(287) 규범/정상화 권력. 근대적 형벌 제도의 역사가 드러내주고 있는 법률적·인간학적인 그러한 처벌제도의 기능은 규범화한 제재의 새로운 메커니즘을 작용시킨 규율의 기술 속에서 형성된 것이다(28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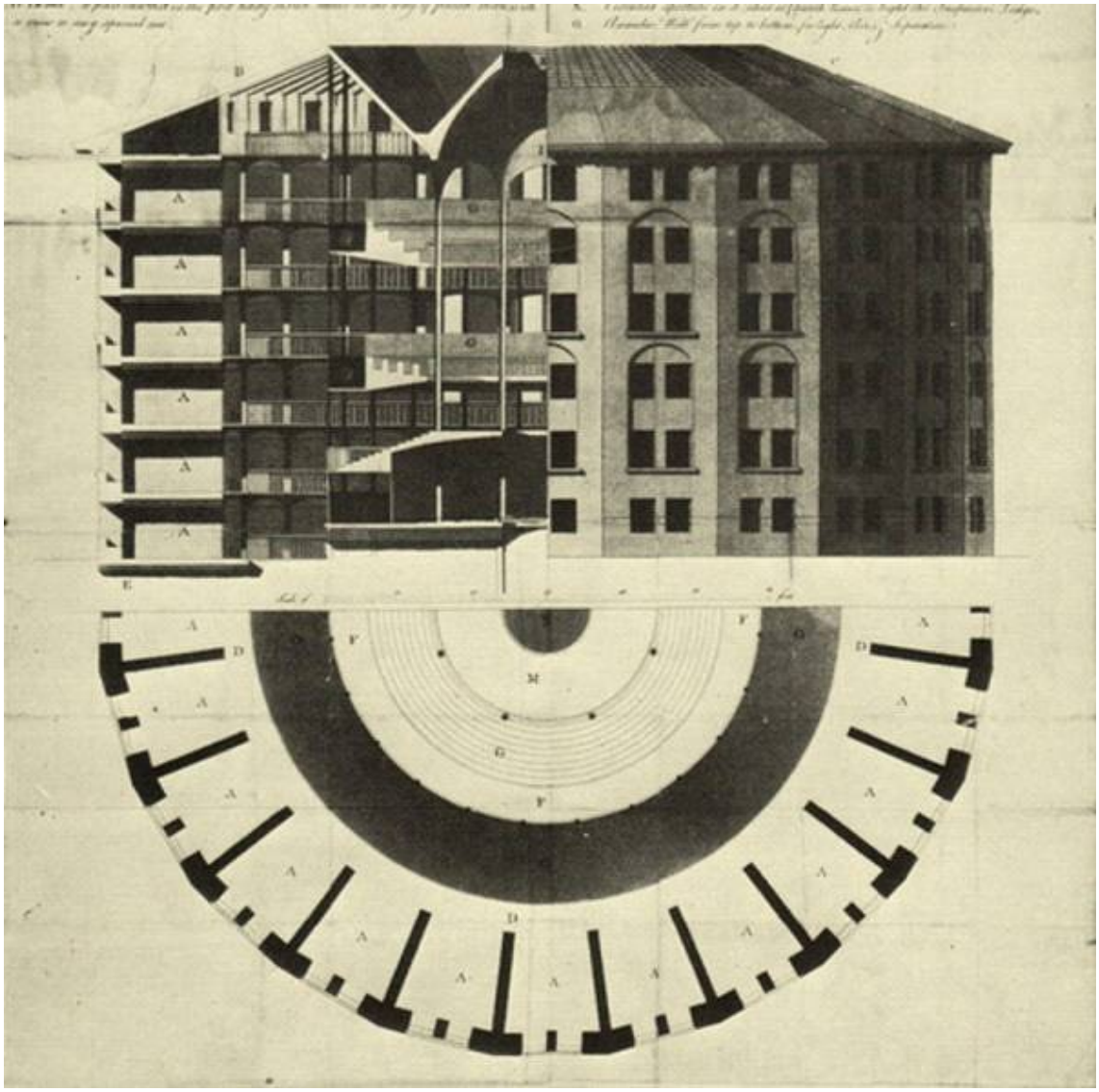
시험

examen - 시험, 검사, 조사, 심문, 검진 ... 규율·훈련 과정의 중심에 있는 시험은 대상으로 인식되는 이들의 예속화를 나타내는 것이자, 예속된 이들의 대상화를 나타내는 것이다(289). 시험은 (1) 가시성의 경제를 역전시킨다. 규율에서 보여야 할 사람은 복종하는 자들이다. 대상화의 의례. 군주의 비영속적 가시성은 신하들의 필연적 가시성으로 전환된다. 무한히 계속되는 시험과 강제적인 대상화의 시대가 온 것이다. (2) 시험은 개인을 자료의 영역 안으로 집어넣는다. 감시영역/기록망. 형식화/공식화/문서화. discipline - 규율/학문(297). 아리스토텔레스적 질문 - 개인에 대한 학문이 가능한가? 인간과학의 탄생?(298) (3) 시험은 개인을 사례(cas)로 만든다. 영웅 만들기가 아닌, 대상화/예속화.

* 규율은 개인화에 대한 정치적 축의 전환을 이룩했다. 정상이 기준. 당신은 아직도 어린아이 같은 점, 비정상적인 충동·욕구·욕망이 남아있는가? 남모를 비행이나 범죄 충동은 없는가? 광기어린 미친 행동을 꿈꾸지 않는가? psychē를 어원으로 하는 모든 학문들은 개인화의 역사적 격변과정에 속한다. 권력은 생산한다. 현실적인 것을 생산하고, 대상 영역과 진실에 관한 영역을 생산한다. 개인과 개인에 대해 취할 수 있는 앎은 이런 생산의 영역에 속한다(302).

3장 판옵티콘 감시체제 panoptisme





- 르네상스의 나병(추방/감금/분리)
- 고전시대의 페스트(분할/개별적 훈육/규율/세분화)
- 근대: 판옵티콘(가시성/감시/대상화)
- 구분들: 광인/광인이 아닌 자, 위험한 자/무해한 자, 정상인/비정상인(308-309).

* 제레미 벤담의 『판옵티콘』(1791년). 수감자는 보일 뿐, 볼 수 없다. 그는 정보의 대상일 뿐, 정보의 주체가 될 수 없다(310). 벤담은 권력이 가시적이고 확인될 수 없는 것이 되어야 한다는 원칙을 세웠다(312). 장치 메커니즘, 자동적, 비개성적, 익명적(313). 보이는 자는 권력관계를 내면화하여 1인2역을 수행한다. 그는 스스로 예속화의 원칙이 된다(314). 규율사회(323).

(1) 규율의 기능적 전환. 규율은 유용한 개인을 만들어내는 기술.
(2) 규율 구조의 확산. 전 사회의 규율 사회화, 정상화. 도덕화.

(3) 규율 메커니즘의 국가화. 내치(內治 혹은 公安, 警察 la police). 모든 것, 순간적인 것, 사소한 것, 발생하는 모든 일을 감시. 무한히 작은 정치 권력(329). 보고서와 장부책. 비독(Vidocq). 개개인의 행동에 관한 지속적인 보고 사항. 우리 사회는 스펙터클(Guy Debord)의 사회가 아니라, 감시사회이다(333).

나폴레옹 시대는 통치적 군주적 제식 본위의 수행 및 무한정한 규율의 위계 질서적이고 지속적 수행이 교차하는 지점에 위치한다(334).

규율사회의 형성은 몇 가지 역사적, 곧 경제적, 법률-정치적 및 과학적 과정과 연관
(1) 총괄적으로 규율은 다수의 인간을 질서정연하게 배치하기 위한 기술이다. 선취-폭력이 아니라, 부드러움-생산성-이익의 원칙이다. 생산과 규율권력(336-338). 마르크스주의의 도식. 노동의 도식, 권력의 도식. 인간축적, 자본축적. 자본주의(338-339).
(2) 인간의 자유를 발견한 계몽주의 시대는 또한 규율을 발명한 시대였다. 계약이 법과 정치 권력의 이상적 기초였다면, 판옵티콘 감시체제는 보편적으로 확산된 강제권의 기술 방법을 만들어 놓았다. 규율(340). 법/규율(341).
(3) 규율은 기술적 단계를 넘어서서 질서화하고, 더 나아가 대상화/예속화의 모든 메커니즘의 중심에 위치한다. 종교재판. 학문의 담론의 구분 기준(342-343).

종교재판 및 세속적 증거조사와 자연과학의 관계는 규율 분석과 인간과학의 관계와 같다. 최근 1세기 이상 전부터 '인류'가 매료되고 있는 인간과학이란 것이 사실은 규율과 그러한 조사방법의 좀스럽고 심술궂은 꼼꼼한 태도에서 기술적 모형을 빌려온 것이다(345). "권력이 다르면, 앎도 다르다"(Autre pouvoir, autre savoir).

근대적 형벌제도의 특징을 이루는 중요한 파생적 움직임들 - 곧 범죄 뒤에 가려져 있는 범죄자에 대한 문제화, 교정·치료·정상화 같은 처벌의 배려, 개인을 측정·평가·진단·치료하여 변형시키기 위한 여러 가지 심급 기관들 사이의 판결행위 분담 - 등 이 모든 것이 사법적 조사 안에서 규율의 시험이 침투해 들어간 것임을 잘 드러내준다(346).

정상상태의 전문가들. 감옥이 공장이나 학교, 병영이나 병원과 흡사하고, 이러한 모든 기관이 감옥과 닮은 것이라 해서 무엇이 놀라운 일이겠는가?(347)

4부 감옥

1장 완전하고 준엄한 제도

자옥의 자명성(自明性, évidence). '평등주의적' 징벌. 법률적 명확성. 수감 기간의 수량화. 산업사회에서는 감옥의 명백한 경제적 논리성을 이룰 뿐만 아니라, 마땅한 배상이라고 보일 수 있게 하는 대가의 형식(forme-salaire)이 존재한다. 이러한 논리성은 하루, 한 달, 한 해를 단위로 하여 형벌을 금전적으로 환산하고, 그리하여 범죄-형기 사이의 수량적 등가 관계를 확립하는 형벌제도의 경제적·도덕적 논리성이라 할 만하다. '빚을 갚기 위해' 감옥에 가다. 교환물의 측정을 위한 시간의 사용이 우리 사회에서 '자연스러운' 것과 마찬가지로, 감

옥은 '자연스러운' 것이다(353). 무엇보다 먼저 감옥은 교정이라는 기술적 기능이 나중에 추가된 자유의 박탈이 아니라, 처음부터 교정이라는 보조적 역할을 떠맡은 '법률상의 구류' 또는 자유의 박탈로 인하여 법률체계 안에서 수행될 수 있는 개인들의 변화를 노린 기획이었다. 요컨대 19세기 초부터 형법상의 수감은 자유의 박탈임과 동시에 기술에 의한 개인들의 변화를 담당해온 것이다(354).

감옥의 '개혁'은 감옥 자체와 거의 같은 시기에 시작된다. 그것은 감옥의 계획과 같은 것이다(356). 감옥을 개혁 운동에 의해 때때로 흔들렸을 무력한 제도로 생각해서는 안 된다. '감옥 이론'은 감옥에 대한 우발적 비판이라기보다는 오히려 - 감옥의 기능 조건들 중 하나로서의 - 부당한 감옥 사용법이었다(357).

발타르는 감옥은 '완전하고 준엄한 제도'라고 말했다. 감옥은 훨씬 더 '범규율적'(omni-disciplinaire)이다. 끊임없는 규율, 전제적인 규율, 완전한 교육의 강제이다(358). 교육의 힘 ...

감옥이 수행하는 실존의 재코드화의 몇 가지 원칙

(1) 격리. 감옥은 개인들이 정신적 측면에서 고립되어 존재하고, 횡적인 관계없는 엄격한 상하관계의 틀 안에서 모임이 결성되며, 그리하여 오직 수직 방향으로만 의사전달이 이루어지는 완벽한 사회의 측도이다(361). 마음으로부터의 복종, 내면적 도덕성의 변화(362). 감옥제도 실행의 일차적 목적은 모든 관계의 단절을 통한 강제적 개인화였다(364).

(2) 노동. "피구금자를 가능한 한 무슨 일이든지 몰두하게 만드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365) 형벌상의 노동이 본질적으로 유용한 것은 (생산 활동으로서가 아니라) 사람의 육체적·정신적 구조에 대해 발휘하는 효과에 의해서이다. 질서와 규칙성의 원리. 다시 말해, 노동에 힘입어 "규칙이 감옥에 도입된다."(367) 감옥은 작업장이 아니라 기계이며, 그 안에서 수감자-노동자는 톱니장치임과 더불어 생산물이 되어야 한다. 노동이 경제적 효과를 낳는다면, 그것은 산업사회의 일반적 규준에 따라 기계화되는 개인을 생산함으로써이다. "노동은 감옥의 종교여야 했다." 개인-기계뿐만 아니라 프롤레타리아의 제조라 할 만한다(368). 형벌의 노동이 갖는 효용성이란 무엇인가? 이윤도 아니고, 더구나 유익한 능력의 양성도 아니다. 그것은 권력관계, 계산되지 않는 경제적 양식, 개인의 복종과 생산 도구에의 적응에 대한 도식의 구성이다(369).

(3) 감옥은 단순한 자유의 박탈을 넘어, 형벌의 경중에 대한 조정 수단, 판결의 원칙을 부분적으로 수정할 수도 있는 행형적(行刑的) 실천·제도이다(370). 형벌이 개별화되어야 한다면, 그것은 (개인-법률 위반자, 범행의 법적 주체, 불법행위에 대해 책임이 있는 장본인을 출발점으로 해서가 아니라) 통제되고 있는 변형의 대상, 감금장치 속에 끼워 넣어져 변형되거나 반응을 보이는 개인을 근거로 해서이다(371). 중범자와 경범죄를 저지른 자(비행자) 사이의 구별. 재판장의 판결이라는 법률적·사법적 실천이 더 이상 문제가 아니라, 그것을 실제로 수행하는 전문가들, 간수들, 소장, 부속 사제 혹은 교사가 형벌권의 보유자들보다 다 훌륭하게 교정 기능을 발휘할 수 있다(373). 감옥의 독립선언(374).

* 감옥 기관의 세 가지 도식
- 개별적인 격리와 위계질서라는 정치적-도덕적 도식

- 강제노동에 적용되는 힘이라는 경제적 모형
- 치유와 정상화라는 기술적・의학적 모형(독방・작업장・병원)

감옥에는 구금의 임무를 벗어나는 여백의 공간에 규율 형식의 테크닉들이 자리 잡는다. 그리고 법적인 것에 대한 이와 같은 규율의 추가 부분이 바로 '행형적(行刑的)인 것(le pénitentiaire)'이라 불린 그것이다(375). * science pénitentiaire = 行刑學 = penology

감옥은 관찰의 장소 - 감시와 (임상적) 인식. 일망감시시설의 주제, 즉 감시와 동시에 관찰, 안보와 동시에 지식, 개별화와 동시에 전체화, 격리와 동시에 투명성 등은 감옥에서 자신이 실현될 수 있는 특권적 장소를 찾은 것이다(377).

감옥에서 비행자(délinquant)는 인식되어야 할 대상으로서의 개인이 된다. 선고받은 법률의 위반자를 대신하여, 행형 장치의 대상이 되는 인물은 바로 비행자이다. 비행자는 그의 행위(acte)가 아니라, 그의 삶(vie)에 의해 범법자(infracteur)와 구별된다(385). 성격, 사회적 신분 및 교육이라는 삼중의 관점 아래 그의 생활사에서 '나쁜' 요소들을 구분해낸다. 이러한 전기적 조사는 도덕관념의 분류를 위한 행형 체계의 한 조건이 되기 이전에 이미 형벌 분류를 위한 사법적 예심의 본질적 부분을 이룬다. 범죄학의 미궁? 형법상의 담론과 정신의학적 담론 사이에 경계가 뒤섞인다. "위험한 개인"(l'individu dangereux)이라는 개념(386). 감옥의 인종지(387). 실증적 인식. 범죄학의 존립 가능성.

- 형사사법 - 법률위반자
- 징계기관 - 비행자 = 전기적 서술의 단위, 위험성을 지닌 핵심분자, 어떤 비정상 유형을 대표하는 존재.

행형학과 쌍을 이루는 죄수의 육체가 나타난다. "감옥이 비행자를 만들어낸다."(389). 비행(성)(délinquince)이라는 비신체적 내용(390). 행형기술과 비행자는 쌍둥이(분신, 이중). 판결과 형법전 개정의 기준은 다름 아닌 범죄의 비정상, 일탈, 은밀한 위험, 질병, 생존 형태이다(390). 비행자의 개념은 '사회계약으로부터 벗어난 도덕적-정치적 괴물의 계열' 및 '처벌에 의해 다시 자격을 부여받는 법적 주체의 계열'이라는 18-19세기 전환기의 두 가지 대상화 방식을 묶어준다(391).

2장 위법행위와 비행 illégalisme et délinquince

"도덕에 관한 책 이외의 모든 독서는 금지된다"(403). 감옥은 형사사법의 대실패작으로 비난받는다. 이러한 비판은 1820년부터 1845년에 걸쳐서 나타나게 된다. 오늘날까지 되풀이되는 비판의 형식은 다음이다. (1) 감옥이 범죄발생률을 감소시키지 않는다. (2) 구금은 재범을 유발한다. (3) 감옥은 어김없이 비행자들을 만들어낸다. (4) 감옥은 비행자들이 서로 연대하여 위계질서를 이루고 미래의 모든 공모관계를 예비하는 비행자 집단의 조직을 가능하게 만들며, 더 정확히 말해서 그것을 조장한다. (5) 석방된 수감자들에게 가해지는 여러 가지 조건들로 인해 그들은 운명적으로 재범의 굴레를 벗어날 수 없다. (6) 끝으로, 감옥은 수감자의 가족을 빈곤상태에 빠지게 함으로써 간접적으로 비행자를 만들어낸다(405-410).

150년 전부터 감옥에 대한 대책은 언제나 감옥으로 되돌아 왔다.

감옥의 기본원칙들은 지난 150년 전부터 만들어진 훌륭한 '행형조건'의 7가지 보편적 준칙들이다. (1) 교정의 원칙 - 형벌로서의 구금은 개인의 태도변화를 본질적인 기능으로 삼아야 한다. (2) 분류의 원칙 - 수감자들은 그들의 행위에 합당한 형벌의 경중에 따라, 또한 특히 그들의 나이, 기질, 사용될 교정기술, 그들의 변화 단계에 따라 격리되거나 적어도 분류되어야 한다. (3) 형벌 조절의 원칙 - 수감자들이 개선되건 다시 타락하건, 그들 개인별로 얻어지는 결과에 따라 형벌의 형기가 조절될 수 있어야 한다. (4) 의무-권리로서의 노동의 원칙 - 노동은 수감자의 변화와 점진적 사회화를 낳는 근본적 부분들 가운데 하나여야 한다. (5) 행형상의 교육의 원칙 - 공권력의 입장에서 볼 때, 수감자 교육은 사회의 이익에 꼭 필요한 예방조치임과 동시에 수감자에 대한 의무이다. (6) 구금에 대한 기술적 통제의 원칙 - 감옥의 체제는 적어도 부분적으로는 훌륭한 인간 교육에 유의하는 정신적·기술적 역량을 지닌 전문요원에 의해 통솔되어야 하고, 그런 사람들에게 맡겨져야 한다. (7) 부수적인 제도의 원칙 - 과거의 수감자가 결정적으로 재적응할 수 있을 때까지 수감은 통제와 구제의 방책으로 이용되어야 한다(411-413)

감옥과 감옥의 실패, 그리고 어느 정도 올바로 시행된 감옥의 개혁을 연속적으로 이루어진 현상처럼 이해해서는 안 된다. 오히려 역사적으로 자유의 사법적 박탈과 중복되어 생겨난 동시적 체제로 이해해야 한다. 네 가지 항목의 체계. (1) 감옥의 규율화에 따른 보충요소로서의 초권력의 요소 (2) 객관성과 기술과 행형상의 합리성의 산출로서의 관련학문의 요소 (3) 감옥을 통해 제거되어야 할 범죄가 강화된 것은 아니더라도 사실상 갱신됨으로써 전도된 효과가 발생한 요소 (4) 관념상의 속성에도 불구하고 감옥의 규율적 기능과 동일한 형태의 개혁이 반복되는 유토피아적 복사판의 요소(41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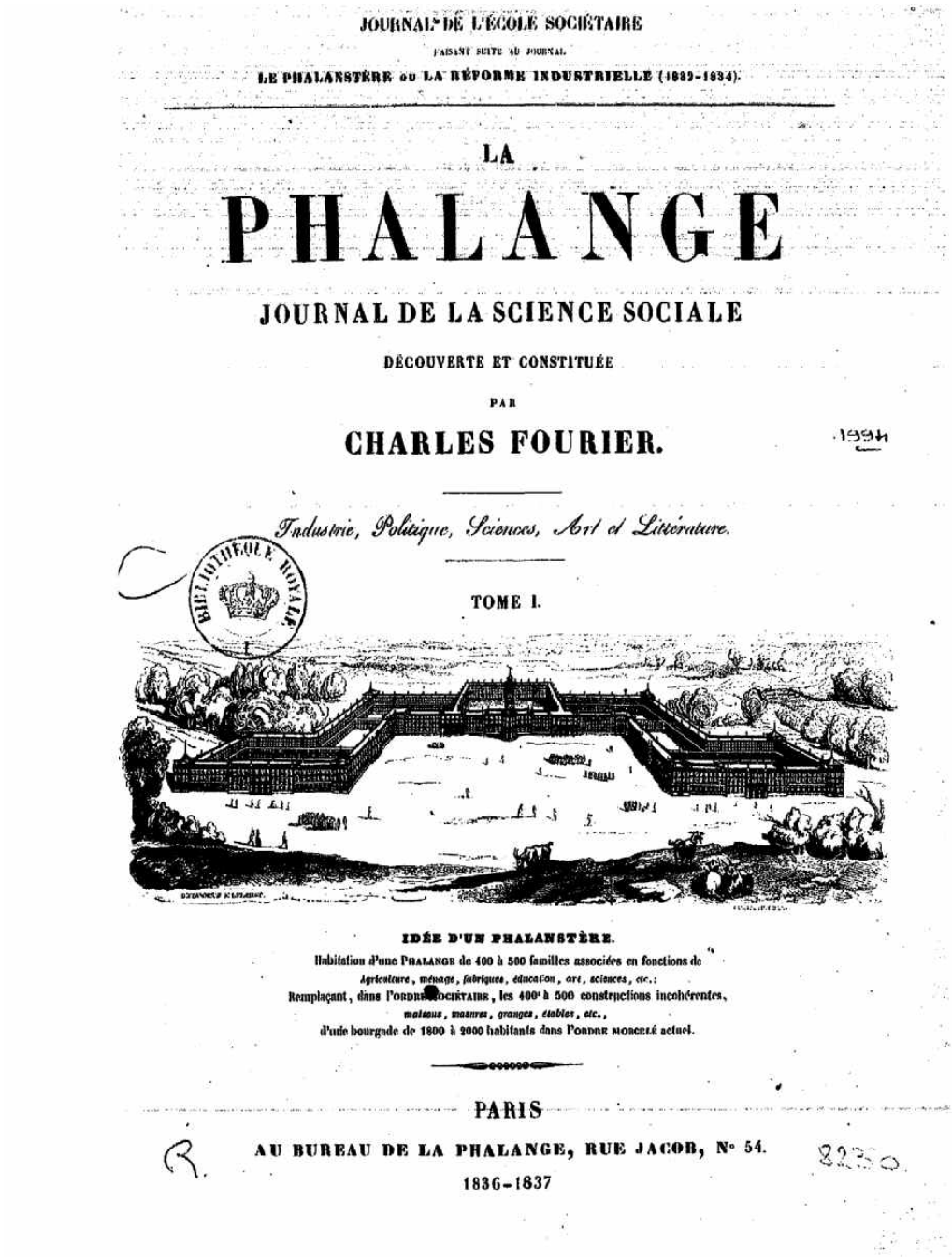
이른바 감옥의 '실패'는 감옥 운용의 일부를 구성하지 않는가? 수감과 관련이 있는 규율 및 기술 체계에 의해 사법장치 속에, 더 일반적으로는 사회 속에 이끌려 들어왔고, 이제는 '감옥 체계'라는 이름 아래 통합될 수 있는 권력 효과에 그 실패가 포함되어 있는 것이 아닐까? 만약 제도로서의 감옥이 그토록 오랫동안 거의 불변의 상태에서 존속해온 것이라면, 만약 감금의 원칙이 한 번도 진지하게 문제시되지 않았다면, 그것은 아마도 감옥 체계가 깊이 뿌리를 내렸고 빈틈없는 기능을 수행했기 때문일 것이다(414-415).

그렇다면 감옥의 실패는 무엇에 도움이 되는가? 형벌제도는 단순히 여러 비행들을 '억제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들을 '차별화하고' 그것들의 일반적 '경제책'을 확보하려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합법적 징벌은 위법행위에 관한 전반적인 전략 안에 놓고 보아야 한다. 감옥의 '실패'는 바로 이 점에 입각하여 이해될 수 있을 것이다(415-416). 1780년대에서 1848년 혁명까지, 나폴레옹 법전. 민중의 위법행위는 과거 2세기 동안 정치 지평으로의 편입, 사회적 투쟁과의 명백한 연결, 여러 가지 형태와 수준의 법률위반 사이의 연계라는 삼중의 확산을 갖는다(417, 419). 범죄가 개인을 사회로부터 소외시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사람들이 사회 속에서 이방인처럼 소외되어 있기 때문에 범죄가 발생한다(420). 법이 만인의 이름으로 만인을 위해 만들어진다고 믿는 것은 위선이거나 순진한 생각일 것이다. 법은 일부 사람들을 위해 만들어지고 다른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효과를 인정하는 것이

더 현명한 생각이다(420). 감옥이 기여하는 것은 위법행위를 확립하는 일이자, 어떤 형식의 위법행위를 그려내어 별도로 취급하고 강조하는 일이다. 비행을 위법행위의 가장 격심하고 가장 해로운 형식, 즉 그것이 나타내는 위험 때문에 형벌 기구가 감옥을 통해 그야말로 줄이려고 애써야 하는 형식으로 생각해서는 안 된다. 오히려 비행은 위법행위들을 구별하고 정돈하며 통제할 수 있게 해주는 형벌 체계(그리고 구금 중심의 형벌제도)의 결과이다(422).

요컨대, 적법성과 위법적 실천 사이에 사법적 대립이 있다면, 위법행위와 비행 사이에는 전략적 대립이 있다. 가설: 감옥은 위법행위가 명확히 한정된 유형이자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 덜 위험한 - 극단적 경우에는 이용 가능한 - 형식인 비행을 낳는데, 표면적으로는 사회의 주변부에 놓여 있지만 통제의 중심적 대상으로 취급되는 비행자들의 사회가 생기게 하며, 비행자를 병리학에서 피실험자로 만들어내는데 큰 성공을 거두었다는 가설. 감옥의 성공은 법과 위법행위를 둘러싼 투쟁의 과정에서 '비행'에 특수성을 부여한 점이 있다(422).

그러나 감옥은 무엇 때문에 그리고 어떻게 퇴치해야 할 비행을 제조하는 역할을 담당하게 되었을까?(423) 통제받는 위법행위 = 비행(illégalisme maîtrisé = délinquance)(425). 비행 위법행위들을 관리하고 이용하기 위한 도구(426).



JOURNAL DE L'ÉCOLE SOCIÉTAIRE

FAISANT SUITE AU JOURNAL

LE PHALANSTÈRE ou LA RÉFORME INDUSTRIELLE (1832-1834).

LA

PHALANGE

JOURNAL DE LA SCIENCE SOCIALE

DÉCOUVERTE ET CONSTITUÉE

PAR

CHARLES FOURIER.

1994

Industrie, Politique, Sciences, Art et Littérature.

BIBLIOTHÈQUE ROYALE

TOME I.

IDÉE D'UN PHALANSTÈRE.

Habitation d'une PHALANGE de 400 à 500 familles associées en fonctions de *Agriculture, ménage, fabriques, éducation, art, sciences, etc.*: Remplaçant, dans l'ORDRE SOCIÉTAIRE, les 400 à 500 constructions incohérentes, *maisons, masures, granges, étables, etc.*, d'une bourgade de 1800 à 2000 habitants dans l'ORDRE MORCELÉ actuel.

PARIS

AU BUREAU DE LA PHALANGE, RUE JACOB, N° 54.

1836-1837

R.

8230.

Source gallica.bnf.fr / Bibliothèque nationale de France

http://gallica.bnf.fr/ark:/12148/bpt6k94117s/f2.image

경찰력에 의한 통제기술의 발전. 비행은 상설적 전반적 감시의 특권적 도구. 비밀경찰과 밀고자들이 포함된 안전국(service de sûreté). 1833년 개인 신상과 삶을 기록한 장부, 일람

표, 범죄기록대장, 개인별 카드 또는 보고서 체계. 경찰관 다음으로 이들을 이용한 사람이 통계학자와 사회학자. 경찰-감옥이라는 쌍둥이는 비행을 특권적 영역으로 설정. 비행은 이제 자체의 특수성과 더불어 그 체계의 결과일 뿐만 아니라, 그것의 톱니바퀴 장치 겸 도구가 된다(경찰-감옥-범죄)(427-428). 경찰력에 의한 사법의 과잉, 사법에 대한 감옥 제도의 타성적 제도는 우연이 아니라 근대 사회에서 처벌의 메커니즘을 나타내는 구조적 특징(429). 비독(Eugène François Vidocq, 1775-1857) - 경찰과 비행의 직접적·제도적 결합이 이루어진 계기. 라스네르(Pierre François Lacenaire, 1803-1836) - 범죄에 대한 탐미주의자들의 낙원. 부르주아 계급이 실제로 행동에 옮기는 정치적·경제적 위법행위들이 이론적·미학적으로 뒷받침되어 나타난 시기를 의미. 범죄의 형이상학. 『조형예술로서 고찰된 살인』(1849, 불어판)(430-433).

비독: http://en.wikipedia.org/wiki/Eug%C3%A8ne_Fran%C3%A7ois_Vidocq
라스네르: http://en.wikipedia.org/wiki/Lacenaire

지배적 위법행위들에 의한 비행의 식민화, 비행과 다른 위법행위들 사이의 단절(433). 언론, 사회면 기사의 기능, 범죄 소설, 추리문학과 결합된 사회면 기사는 100여 년 전부터 과도한 '범죄 이야기들'을 산출(435). 민중신문들은 범죄에 대한 정치적 분석을 자주 시도한다. 이 신문들은 비행의 출발점이 범죄자 개인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범죄자는 범죄의 한 가지 사례 혹은 최초의 희생물에 지나지 않는다) 사회에 있다고 주장한다(436-437).

반사회면 기사 - <라 팔랑주> 지(紙). 푸리에주의자들(fourier). 범죄에 대한 가치부여의 정치이론. 범죄가 문명의 결과일지라도, 그것은 또한 그 사실 자체로 문명에 대항하는 하나의 무기(439). "흑인해방이 범죄 없이 성공할 수 있었을까?"(440) 부도덕하다는 비난을 적대자들에게 돌리는 것에 그치지 않고, <라 팔랑주> 지는 서로 대립하는 세력들의 역학관계를 드러내는 것을 목적으로 사회면 사건들을 활용한다. 13살의 소년(440-442).

3장 감옥체계

감옥제도의 형성이 완성된 시기. 1840년 1월 22일, 메트레 소년감화원이 공식적으로 문을 연 날(445). 다섯 가지 모형. 가족 모형, 군대 모형, 작업장 모형, 학교 모형, 사법기관의 모형(446). "신이 그대를 보고 있다." 메트레의 원장과 부원장은 동시에 재판관, 교사, 직공장, 하사관, 부모가 되어야 한다. 그들은 행동을 다루는 기술자, 품행을 다루는 기술자, 개개인을 뜯어고치는 정형외과 의사, 순종적이고 동시에 유능한 신체를 만들어내야 한다(446-447). 인식되어야 할 '영혼'과 유지되어야 할 예속화(447). '정상화'된다. 규율적(disciplinaire) 기술이 하나의 학문(discipline)이 되고 자체의 학교를 갖는 것이다(449). 인간과학의 역사, 과학적 심리학의 출생. 규율을 근간으로 한 정상화에 저항하는 개인들에 대한 새로운 유형의 통제(지식인 동시에 권력)의 등장, 더 정확히 말해서 그것의 제도적 특정화와 명명식. 정상성을 위한 통제책들은 의학이나 정신의학의 틀에 둘러싸인 '과학성'의 형식을 갖추었으며, 사법기구에 의존하여 직접적으로든 간접적으로든 법적 보증을 얻게 되었다(449).

형법에 의하지 않은 감금 원칙이 폐지된 적은 한 번도 없었다. 감옥의 중개에 의해 법률상의 형벌과 규율의 메커니즘이 동질화되었다(451). 그리고 마침내 거대한 감옥 조직은 사회에 산재하면서 작동하는 모든 규율장치들과 연결된다. 형사사법에서 감옥은 처벌 절차를 행형기술로 변형시켰다. 그런데 이번에는 수용소 군도가 그 기술을 형벌 기관으로부터 사회 전체로 이전시킨다(452-453). -> 그에 따르는 몇 가지 중요한 결과.

(1) 무질서에서 법률위반으로, 법률 위반에서 다시 규칙과 평균과 욕구와 규범에 따른 일탈에로의 단계적 변화를 확립. 가장 사소한 부정행위와 최악의 범죄 사이에는 탈선과 비정상이라는 공통점이 확립된다. 사회의 적은 무질서·범죄·광기 등의 여러 가지 위험을 내포하는 탈선자(déviant)로 바뀌었다. 감옥 구조는 처벌의 대상인 것과 비정상적인 것이라는 다양하고 긴 두 계열을 복잡한 관계에 따라 연결.
(2) 감옥은 자체의 여러 가지 절차를 통해 많은 '비행자들'의 징집을 가능케 한다. 규율 '교육.' 감옥 체계에는 외부가 없다(il n'a pas de dehors). 비행자는 제도의 산물이다.
(3) 감옥 제도와 합법적 투옥을 넘어서는 감옥의 확장이 초래한 가장 중요한 효과는 그 제도가 처벌권을 자연스럽고 정당한 것으로 만들고 형벌 행위에 대한 관용의 기준을 낮게 떨어뜨렸다는 것이다. 그것도 감옥의 체계가 전개되는 두 영역, 즉 법적인 사법의 영역과 법률 외적 규율의 영역이 상호 작용하게 함으로써 말이다.
(4) 권력의 기본 구도인 감옥제도는 권력의 새로운 경제학에 힘입어 새로운 형태의 '법', 다시 말해서 합법성과 자연성, 규칙과 구조의 절충인 규범(la norme)을 개발했다. 끊임없이 표명되는 재판관들의 무한한 '의학에의 욕구' - 정신의학의 전문가들에 대한 그들의 호소에서부터 범죄학의 장광설에 대한 관심에 이르기까지 - 는 그들에 의해 행사되는 권력이 '변질되어' 왔으며, 어떤 수준에서는 법률에 의해 지배되지만 더욱 근본적인 다른 수준에서는 규범적 권력으로 기능한다는 중대한 사실을 드러낸다. 이른바 계몽주의 이래의 사법 '개혁'은 양심의 가책이나 휴머니즘이 아니라, 권력의 경제학에 입각한 행동이다. 정상화하는 권력(le pouvoir normalisateur). 규율장치들이 도처에 존재함으로써 지탱되고 모든 감금장치에 의존해있는 이 규범화 권력은 우리 사회의 중요한 기능들 중 하나가 되었다. 정상성을 판가름하는 재판관들은 우리 사회의 도처에 현존해 있다. 우리는 교수 재판관, 의사-재판관, 교육자-재판관, '사회사업가'-재판관의 사회 속에 살고 있다. 이 모든 사람들이 규범적인 것의 보편성을 존속시키고, 저마다 자신이 있는 지점에서 신체, 몸짓, 행동, 품행, 적성, 성적을 규범적인 것에 종속시킨다. 감옥의 구조는 밀집된 형태이건 분산된 형태이건 통합·배분·감시·관찰 체계를 갖추어서 근대 사회에서 정상화 권력의 거대한 토대가 된 것이다(460).
(5) 사회의 감금 조직은 신체에 대한 현실적 지배와 동시에 신체에 대한 영속적 관찰을 확고히 한다. 그것은 자체의 본질적 속성으로서의 권력의 새로운 경제학에 가장 부합하는 처벌 기구이자, 권력의 경제학이 필요로 하는 지식의 형성을 위한 도구이다. 권력관계 안으로 지식의 명확한 관계를 끌어넣는 일이 필요했고, 예속화와 대상화를 교차시키기 위한 기술이 요구되었으며, 개인화에 따른 새로운 절차들이 구성될 수 있었다. 감옥의 구조는 인간과학의 등장을 역사적으로 가능하게 만든 그 권력-지식의 한 골격을 이룬다. 인식 가능한 대상으로서의 인간(영혼, 개성, 의식, 행실 중에서 어느 것이든 여기에서는 중요하지 않다)은 이러한 분석적 시각의 포위와 지배-관찰의 결과이자 대상이다.
(6) 이러한 사실은 아마도 탄생의 순간부터 비난의 대상이어 온 사소한 발명품인 감옥의 극

단적 견고성을 설명해주는 요인일 것이다.

오늘날 문제는 오히려 그 정상화 장치들의 대대적 확산과 새로운 대상화의 정착을 통해 이뤄지는 전반적인 권력 효과에 놓여 있다(463).

1836년 <라 팔랑주> 지의 어떤 기자 ... 상상의 지정학(géopolitique)으로 만들어진 감옥 체계의 도시가 갖는 원칙 ... 그 원칙은, 이를테면 도시의 중심부에는 그 도시를 오랫동안 유지시키기 위해서인 듯 - '권력의 중심'이나 세력의 핵심체가 아니라 - 다양한 요소들(벽, 공간, 제도, 규칙, 담론)의 복잡한 조직망이 있다는 원칙이며, 감옥 체계로 된 도시의 모형은 - 왕의 신체와 거기에서 비롯되는 권력이나 개인의 것임과 동시에 집단의 것이기도 한 신체가 생겨나던 계약상의 의지의 결합이 아니라 - 다양한 성격과 수준의 요소들을 대상으로 한 전략적 배치라는 원칙이다. 또한 감옥은 법률이나 법전 또는 사법기구의 산물이 아니라면 원칙여고, 감옥은 법원이 내리는 판결과 효과를 거둘 수 있는 순종적이고 어설픈 도구로서 법원에 종속되어 있는 것은 아니라는 원칙이며, 감옥에 대해 외면적이고 종속적인 것이 다름 아닌 법원이라는 원칙이다. 스스로 차지하고 있는 중심적 위치에서 감옥은 홀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고통을 덜어주고 치료하고 구제하도록 되어 있는 것들이므로 겉보기와는 아주 다른 장치들 - 모두가 감옥처럼 정상화 권력을 행사하는 경향을 띠는 일련의 다른 '감옥' 장치들 전체와 연결되어 있다는 것이다. 이 장치들이 적용되는 대상은 '중심적인' 법에 대한 위반이 아니라, 생산기구-'상업'과 '공업'-의 주변에서, 성격과 기원이 다양하고, 이윤의 측면에서 특수한 역할을 가지며, 처벌의 메커니즘들에 의해 취급되는 방식도 다른 모든 각종의 위법 행위들이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모든 기제들을 주관하는 것은 하나의 기구나 한 가지 제도의 단일한 운용이 아니라, 전투의 필연성과 전략의 규칙이라는 것이다. 따라서 억압·거부·배제·소외화 등과 같은 제도적 개념은 감옥과 같은 도시의 중심부에서 교활한 완화책이나 공개할 수 없는 악의, 사소한 술책, 타산적인 방법, 기술, 결국 규율화된 개인의 제조를 허용하는 '과학' 등의 형성과정을 기술하는 데에는 적합하지 않다. · 복잡한 권력관계의 효과와 도구, 다양한 '감옥' 장치들에 의해 예속화된 신체와 힘, 그리한 전략의 구성요소인 담론의 대상들 사이에서, 즉 중심적이고 중앙권력 지향적인 사람들 틈에서, 으르렁거리며 싸우는 소리를 들어야 한다(463-465)

원주) 나는 여기서 이 책을 중단한다. 이 책은 근대 사회에서 정상화 권력과 지식의 형성에 대한 여러 가지 연구의 역사적 배경이 될 것이다(465).

